

“1월 영암·화순 코로나 연쇄 감염, 변이바이러스 아니다”

질병청, 영암 관음사발 61명·화순 사평면사무소발 11명 결과 통보 경기 여주 가족모임 참석한 나주 시리아인 확진자 5명 변이검사 의뢰

지난 1월 영암·화순지역 코로나19 연쇄 감염 사례는 변이 바이러스에 의한 감염이 아니라는 방역 당국 판단이 내려졌다. 다만 연휴 기간 나주 거주 2명을 포함한 시리아 국적자 5명이 잇따라 전남에서 코로나 19 양성 판정을 받으면서 방역당국이 긴장 수위를 끌어올리고 있다. 지역 최초 코로나 19 변이바이러스 확진자로 기록된 전남 609번(나주 거주 20대 남성)이 시리아 국적자라는 점에서 혹시 모를 변이 바이러스 감염 여부를 확인하는 작업에 나선 것이다.

14일 전남도에 따르면 질병관리청은 최근 전남도에 “1월 영암·화순지역 코로나19 연쇄 감염 사례는 변이 바이러스에 의한 감염이 아니다”고 통보했다. 이와 함께 국립나주병원 간호사 양성 사례도 변이 바이러스에 의한 감염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이들 3가지 감염 사례의 유전자형은 GH 그룹으로 변이 바이러스가 아니라는 설명이다.

앞서 전남도는 지난 8일 영암·화순 코로나 19 감염 사례가 변이 바이러스에 의한 것인지 가려달라고 질병관리청에 검사를 의뢰했다. 영암 연쇄 감염은 사찰인 관음사와 인근 마을, 고구마 농장을 중심으로 61명이 양성 판정을 받은 사례다. 화순 연쇄 감염은 사평면사무소를 중심으로 공무원 6명 등 모두 11명의 확진자가 나온 것으로, 두 사례 모두 감염 속도가 빨랐다.

다만 전남도는 함께 검사를 의뢰한 전남 613번 확진자(20대 남성·전남 609번 조카, 1월 10일 확

진) 등에 대한 변이 바이러스 감염 여부 검사 결과는 아직 나오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전남도는 전남 609번에 의해 지난 1월 감염된 것으로 조사된 그의 가족(전남 610, 663, 724번)과 조카 가족(전남 613, 616, 617, 618번) 등 나머지 7명의 확진자 역시 영국발 변이 바이러스에 의해 감염됐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지만, 변이 여부를 가리기 위해 질병청 검사를 의뢰한 바 있다.

전남도는 또한 이번 설 연휴 기간 나주 선별진료소 검사를 통해 코로나 19 양성 판정을 받은 시리아 국적자 5명에 대해서도 15일 질병청에 변이 바이러스 검사를 의뢰하기로 했다. 30대 부부와 2명의 10대 딸 그리고 부부의 20대 조카인 아들 5명에게는 전남 770, 771, 773, 775, 776번의 확진자 번호가 부여됐다.

이들 5명을 포함한 시리아인 20명은 지난 6일 경기도 여주에서 가족 모임을 했고, 참석자 가운데 15명이 코로나 19 양성 판정을 받았다. 전남도는 지역 최초 코로나 19 변이바이러스 감염자(전남 609번)가 나주 거주 시리아인이었다는 점에 주목, 선제적 조치에 나선 것이다.

전남도 관계자는 “지역 최초 변이 바이러스 확진자가 나주 거주 시리아인이었다는 점에서 연휴 기간 신규 확진된 시리아인 3명 역시 변이 바이러스에 감염된 게 아니냐는 우려를 해소하려는 조치”라고 말했다.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



14일 일본 후쿠시마현 이와키에 있는 이와키 시립 도서관에서 한 직원이 전날 밤 발생한 지진의 영향으로 사기에서 쏟아져 내린 책들을 정리하고 있다. /연합뉴스

‘10년 전 악몽’ 후쿠시마 앞바다 7.3 강진… 日 열도 공포

9개 지역 83만 가구 정전 피해 도쿄도 흔들·쓰나미 우려 없어

후쿠시마 원전 폭발 사고를 일으킨 동일본대지진 10년을 목전에 두고 동일본 지역을 흔든 강진이 발생해 일본 열도가 공포에 휩싸였다.

13일 오후 11시 8분께 일본 후쿠시마현 앞바다에서 규모 7.3으로 추정되는 강한 지진이 일어났다. 주말인 토요일 밤늦은 시간에 발생한 이 지진은 수십초 동안 이어졌고, 도쿄 지역에서도 강한 흔들림을 느낄 수 있을 정도였다. 진앙에서 가까운 후쿠시마와 미야기현에서는 진도 6강이 관측됐다.

일본 기상청의 지진 등급인 진도는 지진이 일어났을 때 사람의 느낌이나 주변 물체 등의 흔들림 정도를 수치로 나타낸 상대적 개념으로, 지진의 절대 강도를 의미하는 규모(magnitude)와는 다

른 개념이다. 진도는 사람이 흔들림을 감지하지 못하고 지진계에만 기록되는 ‘0’부터 시작이 가능한 ‘7’까지 10단계(5, 6은 각각 5약·5강, 6약·6강으로 세분)로 돼 있다.

이날 후쿠시마현 등에서 관측된 진도 6강은 10단계 분류 중 2번째로 강한 수준이다. 서 있기가 불가능하고 기어 서 움직여야 할 정도로, 몸이 내동댕이쳐질 수도 있는 세기다.

첫 지진이 발생한 뒤 여진도 이어졌다. 다행히 해수면에 약간의 변동은 관측됐지만, 쓰나미 우려는 없다고 일본 기상청이 곧바로 발표했다.

이날 지진은 동일본대지진 10주년을 할 때도 안 남겨 놓은 상황에서 거의 같은 곳을 진앙으로 발생해 공포감을 안겨줬다. 동일본대지진은 2011년 3월 11일 오후 2시 46분 미야기(宮城)현 앞바다에서 일어났다. 당시 규모 9.0을 기록했던 지진은 거대한 쓰나미를 일으켜 후쿠시마, 미야기, 이와테

현 등 태평양 연안 마을을 휩쓸었다. 이 쓰나미로 작년 12월 10일까지 확인된 사망자는 1만5899명, 행방불명자는 2527명에 달한다.

일본 정부는 기상청의 지진 속보가 발표된 뒤 곧바로 총리 관저에 위기관리센터를 가동했다. 스가 요시히데 총리는 이날 오후 11시 28분께 관저로 출근해 조속히 피해 상황을 파악하라고 지시했다. 이날 자정까지 도쿄와 후쿠시마, 이와라키 등 9개 광역지역에서 약 83만 가구의 정전 피해가 확인됐다.

현재 페로 준비 작업이 진행 중인 후쿠시마 제1원전에는 이상이 확인되지 않았다. 고속철도인 신칸센 일부 노선과 재래식 철도인 JR노선은 안전 점검을 위해 일부 구간에서 운행을 중단했다.

후쿠시마와 미야기현 등지에서선 넘어지거나 물건에 부딪혀 부상자가 발생한 것으로 보도됐지만 사망자가 있는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연합뉴스

나주 반남 종오리 농장서 AI 확진…전남도내 17번째

나주시 반남면 종오리 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AI) 확진 판정이 나왔다. 울겨울 들어 도내 17번째 확진 사례다.

14일 전남도에 따르면 조류 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지난 12일 나주시 반남면 모종오리 농장에 대해 고병원성 AI(H5N8형) 확진 판정을 내렸다. 앞서 11일 농장주는 산란율이 감소하고 오리들이 활력을 잃고 있다며, 전남도에 신고했다. 전남도 동물위생시험소 검사에서 지난 12일 오전 AI 항원이 검출돼 전남도는 농림축산검역본부에 고병원성 여부에 관한 정밀 검사를 의뢰하는

한편, 해당 농장에서 사육 중인 1만2000수 오리에 대한 살처분에 들어갔다.

확진 판정 이후부터 해당 농장 주변 가금농장을 대상으로 예방적 살처분, 이동 제한, 집중 소독 등의 방역 조치에 들어갔다.

전남도 관계자는 “농장주는 축사 밖이 광범위하게 오염돼 있을 수 있다는 인식하에 방역에 특히 신경 써야 한다”며 “농장 곳곳과 차량, 사람, 물품을 반드시 소독하고 축사 출입 시 장화 갈아신기 등 기본 수칙을 꼭 실천해달라”고 말했다.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

‘만기 40년’ 주택담보대출 도입…청년·신혼부부 우선

만기 40년짜리 초장기 정책모기지(주택담보대출) 상품이 올해 안에 나온다. 청년과 신혼부부에 우선 도입된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금융소비자국 업무계획을 14일 발표했다.

금융위는 청년과 신혼부부 등을 대상으로 만기가 최장 40년인 주택담보대출을 우선 도입해 매월 갚은

원리금 상환 부담을 축소할 것이라며, 한국주택금융공사(주공금) 등의 전산 개발을 거쳐 정책모기지 도입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용 계층은 보증자리론 등 현재 운영 중인 다른 정책금융상품과 같을 것으로 보인다. 보증자리론은 소득 연 7000만원 이하, 주택가격 6억원 이하 등의 조건에 부합할 때 받을 수 있다. /연합뉴스

트럼프 두번째 탄핵안도 부결…미 상원, ‘내란선동’ 무죄 종결

미국 상원이 지난 13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내란 선동 혐의에 대한 탄핵심판 표결에서 탄핵안을 부결했다. 상원은 이날 오후 탄핵안 표결에서 유죄 57표, 무죄 43표로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탄핵을 위한 유죄 선고에는 상원 100명 중 3분의 2가 넘는 67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민주당과 공화당이 50석씩 양분한 상태에서 공화당 17명의 이탈표가 필요했지만, 이날 결과는 가결에 10표가 모자랐다. CNN방송 등 외신에 따르면 공화당의 리처드 버, 빌 캐시디, 수전 폴린스, 리사 머코스키, 및 롬니, 벤 세스, 팻 투미 의원이 유죄에 투표했다.

상원 다수당인 민주당의 척 슈머 원내대표는 표결 후 발언에서 비록 무죄가 선고됐지만, 트럼프는 자격을 갖추지 못한 대통령이었다고 비난했다.

슈머 대표는 “트럼프 전 대통령은 평화적인 정권 이양을 폭력적으로 막고 국민의 뜻을 뒤집으며 불법적으로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폭도들을 고무하고 지휘하고 나아가게 했다”고 말했다.

이는 미국의 민주주의에 반(反)하는 것이라면 “그것보다 더 미국적이지 않은 것은 없다”고 그는 지적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표결 직후 성명을 내고 “우리 나라 역사상 최대의 마녀사냥”이라며 “어떤 대통령도 결코 이 같은 것을 거쳐 간 적이 없다”고 비난했다. /연합뉴스

싼땅 대지, 156평

중심상업지역

대인동 롯데백화점 옆
9층 오피스텔 허가 득
PF 28억 확정
매매 - 20억(조정가)

(주)신세계. 010-3605-5000

토지·다가구·주택용지, 임야 매매

1. 상가, 다가구 및 주택용지 ※ 목포남약 준주거, 담양양각 주거2종

(1) **담양읍 양각리 강변 관광제림, 독일 관광마을 조성지 근접, 광주간 15분 공용주차장 도로 3면 포장 배수로 기반시설됨, 경관수려, 정남향, 교통요지, 답 4220㎡(1,276평) 매 ㎡ 6십5만원**

(2) **무안군 삼양읍 남악리 준주거지 롯데마트앞 사거리코너 3만여세대 아파트 핵심상권 1천9평 매75억원**

2. 임야 (전원주택 펜션 농가주택, 휴양소 약초재배 적합)

(1) **영암읍 학송리 계획관리지역 포함 7만6천㎡ 광주간 35분, 4차 국도 근접 마을 변방 편백휴양림 30년생 1만주, 식재 농지가용면적 5천㎡ 월출산 바라본 쾌적한 자연경관, 전원주택, 펜션, 귀촌자 최상 ㎡ 5천원 급매**

(2) **화순 도곡 신성리 광주간 20분 계획관리지역 및 농림지역, 5810㎡(전 포함) 지식강 바라본 마을변방 정남향, 관광제림 경관수려 전원주택, 펜션, 휴양소, 최상 ㎡ 4만원 급매**

(3) **담양 금성 덕성리 광주간 25분, 계획관리지역, 농림지역 종전 밭으로 경작 평지 토질 마사토 22,140㎡, 각종 약초 재배 최상 현 지적상 맹지 자연림 소나무 자생, 매 ㎡ 2만원**

(4) **담양 월산면 중월리 광주간 25분 농림지역 도로접, 62,740㎡ 휴양림 적층 다수 자생 생약 재배 적합, 농가 주택가 ㎡ 5천원 급매**

국민공인중개사 대표 **062-268-8289** 광주 북구 두암동 561-5 삼성플러스빌딩 동광주빌딩 내

꼭! 받아야 할 돈 회수

판결문, 공증·공사대금
각서·운송료·차용증·거래장부·계약서
입금 내역·녹취 등 각종채권상당

절대 선수금 출장비용 없음

(재산조사비, 법적비용은 필요에 따라 발생될 수 있음)

- 채무자 재산, 신용·주거래은행·차량 등 파악
- 실거주지 파악 가능
- 법인회사 부도시 회수 가능

전문추심인
직접관리

선수금만 주고 돈도 못 받고 계신분들이 많으나
당사는 여러분의 재산을 회수한 후 수수료를 받고 있습니다.
당사는 내재산이라는 마음으로
항상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24시간 상담가능

010-2860-4700

직통전화 062)521-4109

공 고 문

여수시 평여동 560-3번지

위 땅은 개인 사유지므로 무단출입 및 그 어떤 용도로도 사용하지 않습니다.
2021년 1월부터 사용을 해야 하니 무단 침범되어있는 나무는 2021년 3월 31일까지 모두 옮기셔야 원상 복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 3월 31일까지 원상 복구되지 않을 시 나무는 임의로 처분함과 동시에 손해배상은 물론 토지 임차료 부과 등 법에 의하여 처리하겠으며, 그에 대한 민·형사상의 법적 피해는 일체 책임을 지지 않겠습니다.

2021년 2월 15일
TEL. 010-4904-2334

분묘개장공고(2차)

상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8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분묘개장을 공고하오니 영묘자 또는 관리인께서는 공고기간 내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만일 공고기간 내에 신고 또는 개장하지 않는 분묘는 무연묘 분묘로 간주하여 관계법령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공고조 임의로 개장할 것을 공고합니다.

1. 분묘위치 : 원남 장성군 북이면 원리리 산 116-12
2. 분묘구수 : 13기
3. 개장사유 : 재산권행사
4. 개장방법 : 유연묘 - 영묘조(신고조)가 직접 개장
5. 공고기간 : 최초 공고일로부터 3개월
6. 안치장소 : 인근공설 추모공원 또는 공인된 납골당
7. 안치기간 : 10년
8. 신고처 : 윤종철(010-6240-5555)
9. 신고사구비서류 : 영묘조 임을 입증하는 호적, 제적등본, 묘지신고서 등
10. 기타사항 : 상기 지번내에 식별이 불분명하게 누락되어 추가발견된 분묘에 대해서도 이공고로 갈음함

2021년 2월 15일
공고인 윤종철, 윤종희

분할 합병 공고

(채권자 이외 및 주권제출공고)

주식회사 그린홀딩스(이하 "갑"이라 한다)와 주식회사 상동전기소방(이하 "을"이라 한다)은 2021년 2월 09일 각사의 임시주주총회에서 "갑"의 전기업사업 영업부문을 분할하여 그 분할된 재산으로 "을"과 합병할 것이고 "갑"은 존속하기로 결의하였으며, 상법 제530조의9제3항의 절차를 밟아 결의하였으므로 이회사 분할합병에 이의가 있는 채권자는 본 공고 게재일 익일부터 1개월 내에 본 회사에 이의를 제출하시기 바라며, 또한 각사의 주주는 해당사에 주권을 제출하시기 바라며 이에 공고함.

2021년 02월 15일

"갑" 주식회사 그린홀딩스
광주광역시 북구 지산마을길 42-1(자야동)
대표이사 노원장

"을" 주식회사 상동전기소방
전라남도 해남군 해남읍 효로78
대표이사 황진숙

산행안내

2월 21일(일)

▲광주K산악회 2월 21일(일)
경복 군위면, 아미산&방가산 산행, 영주체육관 06:30, 동아병원 옆 06:35, 롯데백화점 06:40, 광주역 06:45, 문예후문 06:55, 비엔누주차장 07:00 ※ 다 음카페 광주K산악회 ☎ 010 7794 6920

ABC협회인증 호남 최대 발행 부수

독자와 함께 걸어온 길 60년

先州日報

광주일보 본회의매체가진

세남

광고문의 227-9600 신문구독 220-0551 예약구독 220-0550